

◆며느리권씨 일전 21-1

공인(恭人) 권씨(추밀공파 27세, 권경 權楨의 딸)

전주 이언징(李彦徵, 세종대왕 5子인 광평대군 11世)의 부인

성군 세종대왕은 태종의 무자비하고도 꼭 필요한 정지 작업(?) 위에 당시 세계사상 최고 수준급의 문화와 문명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소현왕후 심씨 사이에 많은 자식(8남2녀)을 두어 왕권의 앞날을 공고히 했지만 너무 훌륭한 왕재(王才)들이 많아 결국 후대에 골육상잔의 아픔을 겪었다. 수양대군의 행위가 결국 조선왕조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오늘에 까지 이른 아픔과 교훈을 주는 사례를 만들었다.

권문에 있어서는 현덕왕후 기신제에서 그 영해 땅의 유통함으로 남아 있고 한국사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의 하나이다.

각설하고 세종이 왕이 되고 얻은 첫 자식이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다. 정확히 말하면 태종(상왕) 사망 후 실질적 왕권을 가진 후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그는 가장 세종을 닮았고 뛰어난 인재였으나 겨우 20살에 핏덩이 아이(영순군, 이부)를 낳기고 별세한다. 광평대군이 굶어서 죽는다는 점괘가 있었으나 그것은 가시가 목에 걸려 그랬다는 데 전설(대동기문)이고 공식적인 것은 창진(천연두)이다. 불과 20살에 삶을 달리 했지만 남긴 오개월 된 아들 하나는 그 뒤 십만 명의 자손으로 불어난다. '한국인 족보'의 진실성을 떠나서라도 매우 신비롭고 대단한 일이다. 그것은 무언가 큰 공력이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 20세기에 들어서 후손 이범석(18세)이 내려오는 조상의 문집을 읽어버릴까봐 필사하여 보관하였는데 이는 400여년에 걸친 광평대군 후손의 발자취를 대변함은 물론 당시 사회변천사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었다.

글을 쓴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존한 사람의 공로가 더 클 수도 있다.

전주이씨는 왕족이니 종친이라는 단어를 독점적으로 사용했으나 해방후 각 문중이 너도 나도 '종친'이라 칭하게 되었다. 또 각 이씨 종친회는 대군이나 군 즉 왕자를 중시조로 하여 종종을 만들고 세대를 표현하고 있다.

남긴 문집을 세고찬편(世稿纂篇, 대대로 내려오는 문집 편집본)이라하여 건, 곤 2권이 보존되어 지금은 연세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명신당집(2세 영순군, 이부 세조), 부정공시(4세, 가평부정, 이정 성종), 판관공문(5세 이연, 연산군), 퇴휴당집(6세 이구익, 선조), 선사집(7세 이유명 광해군), 수암집(7세 이유일, 인조, 11세 李彦徵, 노곡집(12세 이응현, 영조), 졸옹집(13세, 이호승 정조), 가은집(14세, 이의보 현종), 노계집(14세, 이의수 순조), 화암집(14세, 이희호 순조), 의용(14세, 노은집 철종) 등이다.

이 문집을 본 기자가 번역, 편집하면서, 노곡집의 저자 이응현의 모친이 안동권씨 권경의 딸(1704-1733)이라는 것을 밝혔다. 노곡집의 저자 이응현의 부친이 이언징은 부인 안동장씨가 결혼 후 곧 사망, 그리고 권씨와 결혼하고 이후 또 사망하자 셋째 부인을 얻으니 창원 황씨이다. 여기서 권씨부인이 안동권씨족에게는 아들이 2명으로 나오고 이씨 족보는 첫째 이응현은 확실히 권씨 소생이라 나오지만 둘째는 불명확하다. 그리고 권씨부인의 손자 이호승이 졸옹집을 짓고 이후 그 증손자 대에 와서 네 형제가 각기 이의보는 가은집, 이의수는 노계집, 이의호는 화암집, 이의용은 노은집을 짓는다. 살제는 기록을 모아 후대에 작자의 호를 따서 집(集)이라 한 것이다.

통상 본 '며느리 권씨 시리즈'에서는 며느리 문제는 해당 시집간 성씨의 족보나 문집에 의해 알아내야 하지만 거의 생몰연대등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씨로 부터 역추적 된 것이니 비교적 명확하다. 추후 이런 교차 검증으로 족보의 진위,



전주이씨광평대군파 세고판편 표지와 내용 일부. 이 문집이 주는 의미는 조선왕실 가계의 변천과 의식을 살펴보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진 권오철



통덕랑(정5품) 전주이공언징자묘, 배 공인안동권씨(추밀공파 27세)

사진 권오철

비문에는 "부인 안동권씨(安東權氏)는 아버지가 조상의 덕으로 통덕랑(通德郎)과 직장(直長) 벼슬을 음보(蔭補)하신 경(懲)이고 박문(博文) 경공(敬公) 휘 권체(權體)의 후예이십니다. 여인의 덕을 잘 지키시고 집안을 다스리는 데 아무 결함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집안의 여인들은 모두 그녀를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갑신년(甲申, 1704년)에 태어나 30살에 계축(癸丑, 1733)에 돌아가셨고 묘지는 염둔(葉屯) 해좌(亥坐, 北北西)에 있으며 아들 한 명을 낳았으니 이름은 응현(膺顯)이십니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아들 응현에 대한 기록은 "저희 할아버지의 휘는 언징(彦徵)이며 맑은 덕을 가지신 분이다. 재취하시니 안동권씨(安東權氏)로 휘 경(懲)의 딸인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조상님들의 내력입니다. 부군 응현(府君, 墓顯)은 영종(英宗)의 별모(丙午, 1726년) 정월 14일에 태어나셨고 응모는 빠어나고 아름다웠고(秀雅) 기량은 넓으시고 아주 어린 나이에 재주가 많으셨다. 내가 들키로는 부군(府君)이 독서할 때 스무줄의 내용을 한 번을 읽고 바로 외우시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정도이셨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손자 졸옹집의 저자 이언징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니 과거 시험을 치고 피곤하여 여관으로 가서 쉬다가 갑자기 사망하여 다음 날 장원급제 이호승이 발표하려는데 사망소식을 들은 시험관이 이를 취소하는 일이 생겼다. 남이 들어도 너무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이언징의 조상 광평대군(李潤)이 무안대군(李芳蕃)의 제사를 이으니(奉祀孫), 무안대군 파로 나온다. 더구나 광평대군은 무안대군의 손자뻘이나 호칭에 논란이 있다. 그러나 실록은 단순히 뒤를 이으라(其以廣平大君 瑞爲芳蕃後)였으나 봉사손이 맞고 이후 기록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 게다가 광평대군 행장기를 변계량이 썼다고 나오나 그는 광평대군 7세에 이미 사망한 것임이 그 미스테리로 풀어볼 만한 것이다.

기록문에는 "호중(皇中)의 아들은 내명으로 이보(義輔)의 수의(義守) 이호(義浩) 의용(義容)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어렸습니다.

오호라! 아버지의 덕과 행을 보면 두터우면서도 깊으십니다. 곧 큰 열매를 얻을 운세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겨우 장원급제를 해내 신 상황에

서 바로 중년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절연

추밀공파 총제공 종중 체육대회 참석 후 시조 묘소 참배

추밀공파 종중에서는 지난 5월 4일 안동에서 개최된 전국청장년체육대회에 충주에서 56명이 참석한 후 시조 묘소에 참배하고 하회마을을 둘러보고 귀가했다. 총제공은 문충공 양촌 권근의 맏아들이며 많은 후손들이 충주에 세거하고 있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금제(折蓮, 及第, 연꽃을 따다, 장원급제의 뜻) 하셨고 상양 성균관(上庠, 成均館, 성균관 입학)하지 못 하셔서 꼭 저승에서도 안타까운 한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상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진천 사람 이호중(李昊中)이 공주 외가에 있을 때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는데, 그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너의 모친 병이 위독하니 빨리 집으로 가서 잉어를 구해 드려라"고 말하였다. 그 길로 집으로 가다 잉어 장수를 만나 두 마리를 사서 가는 데 목천(木川) 개천치(開天峙) 밑에 이르러 호랑이를 만났다. 때는 저녁이어서 사방이 어두웠으나 사정을 말하니 호랑이가 그대로 가 버렸고, 집으로 돌아와 잉어를 끓여 드려 효험을 보았다. 뒤에 또 어머니가 병이 나서 모든 약이 효과가 없었다. 의원이 뱀의 기름이 좋다고 말하자, 때마침 겨울이라 뱀을 구할 수 없어 걱정하며 방황하는데 고독의 씩은 뿐이에 난데없이 뱀 한 마리가 있어 이를 잡아 먹게 해 드려 효험을 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상복을 입고 아버지를 위해 앞개울에서 고기를 낚는 모습을 보고 길손이 조소를 보내온 한참 지나 부친을 위하여 고기를 잡는 줄 알고 돌아와서 사과한 일도 있었다. 사후에도 부모의 제삿날이 되면 매번 큰며느리의 꿈에 나타나 음식을 정결히 하라고 타일렀는데, 그 일이 10년간이나 계속되었다고 한다. "진천군지", "진천향토지" 등에 기록이 전한다. 이호중은 효성이 지극하고 학문(學問)이 매우 높았다. 부모의 제삿날이 되면 목육재계한 뒤 관복을 갖추고 몸소 사당을 청소하며, 평소처럼 불러 세수 차리는 일을 돋고 정결하게 따르는 일을 거의 10년 동안 하였다.

그 같은 효심은 조정에 보고되었다. 그리고 일찍이 시를 지어 아들에게 일렀는데, "사람이 천지간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다. 살아서 이룬 일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 소학(小學)을 어찌 여덟 살 때만 배우겠는가? 몸을 닦는 업적은 평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상훈과 주모] 이호중의 이야기를 조정에서 알고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증직하였으며, 제주(祭酒) 임현회(任憲晦)가 행장(行狀)을 짓고 사헌부집의 임의상(任翼常)이 묘지(墓誌)를 썼다.

권씨부인의 행적은 차츰 기록을 검토하면서 알아보고 이번 회에는 세종대왕에서 광평대군으로 내려오는 권씨부인 남편 이언징의 가계와 권씨의 친정 권근의 아들 권제로 부터 권경에 이르는 각 10세대의 지위지역이 이전의 사실들을 마침 자료를 정리하는 기자의 입장에서 비교 검토하면서 조선의 왕족과 사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인연의 변이를 분석, 천착해보기로 하자!

그리고 공인 권씨부인의 부군 이언징의 가슴 아픈 사연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권씨부인의 부친 권경의 이름도 안동권씨대동보에 있는 경(懲)이나 전주 이씨족보(緒源續譜)에는 경(木+景)으로 나오니 이제 정밀하게 족보를 재구성 할 시점이 왔다.

그리고 이언징의 조상 광평대군(李潤)이 무안대군(李芳蕃)의 제사를 이으니(奉祀孫), 무안대군 파로 나온다. 더구나 광평대군은 무안대군의 손자뻘이나 호칭에 논란이 있다. 그러나 실록은 단순히 뒤를 이으라(其以廣平大君 瑞爲芳蕃後)였으나 봉사손이 맞고 이후 기록은 잘못된 것이라 본다. 게다가 광평대군 행장기를 변계량이 썼다고 나오나 그는 광평대군 7세에 이미 사망한 것임이 그 미스테리로 풀어볼 만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추밀공파 정현공 종중과 경북청송종친회 양촌 권근 삼대 묘소 참배

지난 4월 30일 추밀공파 정현공(正獻公, 14세) 종중 20명과 경북청송종친회 24명은 충북 음성 방죽리에 위치한 문충공 양촌 권근(權近) 삼대 묘소에 참배했다.

문충공 종중(회장 권오협)에서는 현수막을 내걸고 삼대 묘소 방문을 환영하고, 권오협 회장은 참배자들에게 문충공 양촌 권근선생과 문경공 지재 권제와 손자 이평공 소한당 권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묘소에 얹힌 전설같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권오협 문충공 종중 회장

마창진 종친회 33년 만의 종합우승 기념 시조 태사공 묘소 참배

마창진 종친회(회장 권오수)는 지난 5월 4일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에서 33년 만에 종합 우승을 거두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종원 30여 명은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393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참배하고 안동권문의 뿌리를 상기하며 승조이념 학립, 애족사상 고취, 후학계도 기여, 사회윤리 배양이라는 안동권문의 종시(宗市)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향후 마창진 종친회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자고 마음



을 모았다.

권영삼 부회장

능곡회 제33회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 해단식 및 5월 월례회

능곡회(陵谷會 회장 권태형) 주최 제33회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 및 5월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5월 4일 안동시민운동장에서 안동권씨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성곡리에 대회를 마치고 19일 만인 5월 22일 오후 6시 30분 안동그랜드호텔 페퍼민트홀에서 해단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권태형 능곡회장을 비롯하여 권오직 능우회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국장, 권광택 경북도 의원, 능곡회원 및 능우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우경 능곡회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해단식에는 국민의례, 시조 묘소 망배, 회장 인사, 격려사, 축사, 체육대회 결산보고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권태형 능곡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느라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신 능곡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겠으며 그 은혜는 살아가면서 깊어 나가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권영훈 준비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전국체육대회를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무사히 마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대회 기간 중 능곡회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였다"며 치켜세웠다.

권우경 능우회장은 격려사에서 "능곡회가 이번 전국체육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한층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준 결과"라고 말했다.

권철환 종친회장은 축사에서 "능곡회가 대단한 일을 해 냈다. 내가 종친회장을 맡고 전국체육대회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능곡회가 아름다운 선물을 나누는데 주어서 마음에 새겨둔다. 안동권문의 미래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며 격려했다.

축사는 끝나자 권우경 사무국장은 전국체육대회 결산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약 2억 원의 예산으로 대회를 열었는데 다행히 적자는 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능곡회원 및 능우회원이 단체로 기념촬영을 한 후 회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답을 나누면서 뷔페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식사 자리에선 이번 시조 묘소 앞에서 성회를 채화하는 장면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방영하기도 했다.

주최 측은 참석자 전원에게 긴 우산 1개씩을 선물로 나눠 주었다.

권영건 보도부장

예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생전뿐 아니라 유언에 의하여 사후의 법률관계의 지배도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유증, 상속분의 지정, 유산분 할방법의 지정, 상속인의 폐지·인지 등 법률로서 정한 일정한 것에 한한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증인이 필요가 없고,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위조, 변조의 가능성도 많다.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기에 유언내용을 녹음하는 방법으로 증인이 한명 이상 필요하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당사자가 유언한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한 후 공정한 것으로 안전하다. 그러나 비용이 들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한 것으로서 내용은 알 수 있지만 유언의 존재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특별방식으로 구수증